

1. 90년대 후반 분위기의 고급 주택 / 저녁

90년대 후반.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주택. 현관문을 열고 부모가 들어오자 교복을 입은 여자 아이(#2의)가 현관 문에 서서 공손히 인사를 한다.

여자아이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김회장 어 그래. 인사하렴. 알지 이쪽은... 그래. 너희들은 처음 보는 거겠구나.

부모님 뒤로 수줍게 귀티나는 일상복 차림의 남자아이(#2의)가 우물쭈물 나와 인사를 한다.

고개를 가볍게 가우뚱 하며 남자아이를 보는 여자아이의 눈이 묘하게 빛난다.

<CUT TO>

네 사람이 널찍한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중년의 부모 두 명,

그리고 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남녀. 여자아이(13세) 남자아이(12세).

이들 둘은 서로 마주 보고 앉아있다.

중년의 부모는 마주 보고 앉아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한다.

예의바르고 부티가 나는 식사자리. 집사복 차림의 아주머니는 저녁 시중을 든다.

어린 두 남녀는 식사는 뒷전이고, 서로를 웃으며 바라보고 있다.

이때 식탁 아래를 비추는 화면.

여자아이의 발이 조심스레 남자아이의 발끝에 닿는다.

남자아이는 놀란듯 눈을 크게 뜨고 여자아이를 바라본다.

2. 미유의 회상 몽타주 / 과거 / 미유와 수원의 신혼집 / 밤

여기저기 한쪽에 곱게 리본 포장된 로봇 청소기, 와인 등

고급스러운 집들이 선물 잔뜩 쌓여있고

장인어른인 김회장과 그의 형, 미유의 큰아버지와 그의 아들 김홍빈 부자를 포함,

미유의 가까운 친척 몇몇이 모인

신혼 집들이 저녁 식사 풍광.

맞은편 앉은 미유의 발에 자신의 발을 올리는 홍빈.

더럽다는 듯이 홍빈을 노려보고 발을 빼는 미유. 자리에서 일어난다.

미유를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홍빈.

수원, 장인 김회장에게 와인 한 잔 받고 고개 돌려 마시려다

주방에서 미유와 딱 붙어서

티격태격 중인 사촌동생 김홍빈 본다.

미유 (작게)귀찮으니까 저리 좀 가줄래?
홍빈 내가 도와줄게.
미유 됐다니까. 번잡하다고. 좋은 말 할 때 애는 가라 쫓.
홍빈 (농)싫다면?
수원 (보는)
김희장 (흠짓 그런 수원 보며)신경 쓸 거 없네.
수원 ?!
김희장 (미유 보며)둘 다 외동이라 그런가...어릴 때부터 사촌지간인데도 친남매처럼 늘 저래. 그래도 또 진짜 싸우는 건 아니니까 개의치 말게.
수원 아, 네....장인어른 한 잔 더 하시겠어요?
김희장 난 똥고 큰아버지나 한 잔 더 따라드려. 하나 뿐인 조카 집들이라고 바쁘신데 여까지 와주셨는데.
수원 네. (큰아버지에게 와인 따르며 조심스럽게)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숙부 (세상 딱딱)그래, 잘들 살고.

그 모습 흐뭇하게 보는 김희장.